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현실은 절망의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수해를 당해 망연한 눈길로 하늘만 바라보는 이들의 텅 빈 표정이 안타깝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공평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땅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돌봄임을 아웁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으셔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넣게 해주십시오. 이웃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야말로 우리 영혼이 하늘에 더욱 가까운 때임을 자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미가7:8	인도자
----------------	-------------	-----

♠ 교 독 문	8. 시편19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II. 한완식 장로
------------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377. 예수 따라가며	다함께
-----------	--------------------	-----

성경봉독	I.	정현주 집사
	II. 갈6:1-5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김재흥 목사
	II. 사람의 줄무늬	김기석 목사

거듬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372 . 나 맡은 본분은 다함께
 헌금봉헌 <연주: 홍지희>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있는 걸림돌은 치워주고, 마음 상한 이들이 삶을 경축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인생 학교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아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12)/김재흥 목사	말씀 : 김기석 목사
기도 : 한선희 집사	기도 : 백혜숙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구성실 장로	정영선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홍순구	유영남	이영란	이증자
	헌금위원	한상익	김중수	김근중	배상순	최숙화	박효선

예언자와 설교자

나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떠돌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설교자들이 교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선포하기를 꺼린다고 생각한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핵심을 건드렸다고도 말할 수 없다. 나는 지금의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자신이 있다. 그런데도 나는 나의 말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곤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설교자들이 순치(馴致)된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어찌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도 있다. 당신이 어떤 제한도 없이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몹시 화가 났거나 당신이 비난하는 대상들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정직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예언자 정신에 불탔던 이들이 불편부당한 교구 목사가 되기 위해 길들여지는 것을 보아도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나는 세상일을 행하는 선한 사람들—그들은 크든 작든 사회의 불의에 어쩔 수 없이 연루되어 있다—을 비난할 수 없다. 괴테가 말했다시피 양심은 행위자가 아니라 관찰자에게 속한 문제이다. 그러니 설교자들이 도덕적으로 민감한 것은 어느 정도 그가 몸으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관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목회가 성공적인지 여부는 당신이 기독교 복음의 총체적 의미를 이미 충분히 파악했다든지,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의무로써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과연 그 총체적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기독교적인 실천이 진리를 향한 공동의 탐구가—그 속에서 설교

자는 단지 많은 탐구자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일 뿐이고, 다른 이들과 대면하는 그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된다면, 설교자는 떠돌이로 살도록 강요받지 않으면서도 한 사람의 예언자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1924년)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

오늘 아무개 씨 집을 심방했다. 어린 램프는 강아지를 자기 장난감 속에 슬쩍 끼워놓음으로써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계획했던 것 같다. 나는 그 집 개가 강아지를 낳았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개는 털수룩한 머리털 때문에 눈이 완전히 덮여 있어서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램프는 그 개의 시야를 확보해주기 위해 머리털을 자르면 오히려 눈이 멀고 말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자연은 이처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조정해나간다. 어쩌면 미래의 숙녀들은 귀를 드러내지 않으면 귀가 먹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램프의 개는 우리의 무종교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은 미신과 환상에 의해 가려져 있는데, 그들은 지식의 일광 속에서도 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미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도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전망이 주어지는 순간 그들의 눈은 오히려 멀고 만다. 여명 속에 살 때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만 밝은 빛은 오히려 생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눈은 결국 밝은 빛에 적응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을 당혹케 하던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들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관계성과 전체성 속에서이다.(1924년)
— 리처드 니버의 <<어느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 중에서

왜 사는가

사람들은 내게 자주 묻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수련 수사(*수도회에 입회하여 교회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을 마칠 때까지 수도 생활 첫 단계를 익히고 있는 남녀 수도자를 일컫는 말이다) 시절에 경애하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삶의 그 모든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면적인 동요를 느끼고 정신적인 혼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대답합니다. 삶의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인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인 당신이 불행하고 괴로우면 나도 아픈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이처럼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악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짧은 순간이라고.

창조의 의미는 사랑이 사랑에 응답하는 데 있습니다. 두 개의 자유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절정(絶頂)이 없다면, 모든 창조는 무의미합니다.

-피에르 신부, <<하느님...왜?>>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찬양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김준호 곽혜자 박애순 이봉옥
정완수 김재광 최종원 이인웅 박창운 허정윤 김용진 박효선 임고운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최윤희 황원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김성자 박순성
배부례 송임희

감사헌금:

송양진 박병구 홍순구 안홍숙 박범희 방문성 박혜경 무명2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연합속회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7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2. **성경학교** :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24일)부터 수요일(26일)까지 강화도의 화남교회에서 열립니다.
3. **청년회** : 오후 1시 30분부터 <십계명>을 중심으로 대화 모임을 갖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기획위원회** : 다음 주일(30일) 오후 3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열립니다..
5. **신앙실천** : 겸소하고 소박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히 함이 잘 섬의 근본입니다.

* 식당 봉사 :

* 헌화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